

‘시민 제안’ 재활병원 설립 추진

서울시,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안 참여 플랫폼서 제안... 시장 직접 답변 전국 첫 공공어린이전문병원 조성키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 ‘장애인공공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와 병원 부지 물색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안은 서울시의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됐다. 시민 1120명이 공론에 참여해 박 시장이 영상으로 직접 답변했다.

박 시장은 “장애인 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39만 4000명의 장애인들이 제때에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 전문병원 조성,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장애청소년의 재활사업 확대, 시립병원 재활의학과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강북구 번동에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 전문병원인 ‘강북어린이전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제안에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

병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 병원을 급성기 질환과 특수 질환 진료,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중점을 둔 25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박 시장이 2018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에서 1개월간 ‘옥담방살이’를 한 후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구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복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내년에 동남권과

동북권에 1곳씩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지역의 기존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는 서남권의 보라매병원과 서북권의 서울재활병원이 지정돼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설립”이라는 이번 서울시의 답변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 자그마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사대문 안에 5등급차 못 들어온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시 과태료 10만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를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지역운행을 막는 ‘녹색교통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

했다. 시는 7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만원으로 불어난다.

시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 μg/m³로 전년 같은 기간 35 μg/m³과 비교해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올해 4월 일평균 9360대로 38.1%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3D로 보는 서울 지도, 1단계 구축 완료

부동산·실시간 교통 정보



PC용 가로버전 화면 구성

서울시는 3차원(3D)으로 가상의 서울을 구현한 ‘스마트 서울 맵’(S-MAP)의 1단계 구축을 완료해 1일 공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 전역의 지형과 약 60만 동의 시설물을 3D로 만든 이 지도는 해당 장소의 부동산정보(공시지가), 실시간 교통정보 등 행정정보를 결합해 보여 준다.

특히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와 연계된 472개 CCTV 실시간 교통정보는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시는 강조했다. 도서관, 보건소와 같은 공공건축물과 서울지하철 역사 내부 모습도 볼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지하철 역사 154곳, 공공건축물 54곳, 지하상가 2곳 등 210곳의 내부 모습을 공개하고, 8월까지 285곳을 추가해 총 495곳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부터 청년일자리 육성 정책으로 추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과 지하철역사 실내정보를 구축해 왔다. /김현정 기자

SNS마켓 주문취소·환불거부 피해 증가

서울시, 피해 금액 2억3156만원 응답자 32.9% “피해 경험있다” 신고 많은 플랫폼 ‘카카오토토리’

서울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경고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한 SNS 쇼핑 피해 현황에 따르면 1년간 총 신고 건수는 2002건, 피해 금액은 2억3156만원이었다.

신고 유형은 ‘주문 취소·반품·환불 거부’가 1671건(83.5%)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와 연락 불가 및 운영 중단’은 185건(9.2%)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았던 SNS 플랫폼은 카카오토토리·톡채널로 80.4%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 피해 신고는 총 99건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피해 유형별 통계자료〉

피해유형	상당건수	비율
주문취소·반품·환불 거부	1,671	83.5%
판매자와 연락불가 및 운영중단	185	9.2%
배송지연	70	3.5%
계약변경·불이행	34	1.7%
제품불량·하자	27	1.3%
기타	15	0.7%
합계	2,002	100%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료

로, 신고자 연령은 20대(48건)와 30대(46건)가 대부분이었다.

전자상거래센터가 일반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SNS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SNS 쇼핑 경험이 있는 1893명 중 32.9%인 623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54.4%가 ‘허위·과장 광고’를, 36.9%가 ‘정당한 구매 취

소 및 환불 거부’를 꼽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SNS마켓은 다이렉트 메시지, 메신저, 비공개 댓글로 구매가 이뤄져 폐쇄적 특성이 강하다”며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경기 파주시는 지난 30일 금촌새마을지구(조합장 윤명자)와 문산 1-5구역(조합장 김진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된 ‘금촌새마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해 왔지만 지난 2018년 롯데건설㈜과 중흥토건㈜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사업규모는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약 14만 8000㎡에 지하 3층~지상 28층의 공동주택 5개 단지, 총 2583세대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

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7년에 조합이 설립됐고 2018년 극동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사업규모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1번지 일원 2만 5000㎡에 지하 3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 5개 동이며 총 668세대로,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산3리 지구’도 오는 7월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어 지난 3월 27일과 4월 22일 각각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금촌울목지구’ 및 ‘금촌2동 제2지구’와 함께 파주시는 5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산시, 택시업계 간접지원... 109대 감차

5년간 총 729대 택시 감차 성과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올 상반기 택시감차보상사업을 통해 일반 택시 109대를 감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30억 5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4억 2510만원, 시비는 15억 3690만원이며 부가세 경감세액은 10억 9000만원

이다.

당초 부산시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60대 분의 국고보조금만 확보한 상태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지원의 일환으로 감차 대수를 늘리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49대분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4월 10일 일반택시 109대 감

차, 대당 감차보상금액 2800만원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상반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억 9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로써 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택시 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 총 729대를 감차(일반택시 649대, 개인택시 80대)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받은 금액은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억 2000만원에 이른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오늘의 날씨

7월 1일 (수)

음력 : 5월 11일

수도권 날씨

27 ~ 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연천 18/27

동두천 18/27

가평 17/27

파주 18/27

서울 19/27

양평 18/27

인천 19/25

수원 19/26

용인 19/26

평택 18/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